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6, 계시록 1장에 대한 설명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36강의 데이브 매튜슨(Dr.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계시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해석자와 독자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대의 비유나 가까운 비유가 실제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편지를 쓰고 읽는 것, 이야기를 쓰고 읽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는, 그 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시간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학적 유형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방식.

자, 우선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습니까?라는 노트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봉해지지 않은 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곱 인이 찍힌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신비롭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유사점이나 비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을 읽고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회하여 역사적 예수에 기초한 복음서의 더 안전한 근거로 후퇴하거나, 아마도 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찾을 수 있는 바울 서신으로 후퇴하고 계시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신약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주석을 쓴 존 칼빈처럼 뛰어난 신학자일지라도 그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단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평론가들, 즉 테이터들도 아마도 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조차도 계시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그것을 무시하고 복음서나 서신서의 더 안전한 근거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극단은 계시록에 너무 집착하고 매료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요한계시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가서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을 검색해 보면 전체 웹사이트가 요한계시록을 해독하고 그 환상과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비추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읽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역과 웹사이트,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을 알아내려고 온 힘과 집중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Left Behind 시리즈는 책 시리즈의 좋은 예입니다. 비록 허구이지만, 요한계시록이 실제로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저자가 생각하는 방식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을 알아내려는 두 가지 매우 일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는 그 반대 극단에 집착하게 되고, 특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비추어 그것을 알아내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현대의 사건과 잘 어울린다. 그런 점에서 계시는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기 위해 들여다보는 수정구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두 가지 극단을 모두 피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할 정도로 성경에 너무 집착하거나, 저자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고 독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멋진 완전한 해석을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신약성서의 책과 마찬가지로 먼저 요한계시록을 원래의 맥락으로 되돌리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그랬듯이, 복음서에서 그랬듯이, 다른 일반 서신서에서도 그랬듯이,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작가는 무엇을 하려고 했나? 작가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나? 최초의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했을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배경을 재구성하고,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을 것인지를 질문함으로써 다른 신약성서의 책들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옹호하는 반면, 우리가 그러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왜 쓰여졌습니까? 저자는 누구였습니까? 독자들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촉발한 위기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 책의 저자와 날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자의 이름이 John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교회 역사 초기와 초기 기독교에서 일부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몇몇 다른 요한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존스가 누구인지, 또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 선택 사항에 관해 교과서에서 신약성경을 소개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인 선택, 혹은 가장 대중적인 선택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 즉 사도 요한과 동일한 저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고수해 왔으며, 요한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보는 것에 대한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1세기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요한이라는 이름의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든 이 요한이 누구였든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에 잘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장을 읽어보면 그는 자신을 그들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밝히며, 교회들을 꽤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누구든지, 그가 사도이든지 아니면 다른 잘 알려진 1세기 선지자 요한이든지 그는 교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더라도 그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의 편지와는 달리, 저자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구약의 선지자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적 전통의 결론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구약성서의 예언적 형식을 활용합니다.

그는 선지자의 권위로 글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구약의 몇몇 위대한 선지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누구이든 그는 주로 예언 전통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글을 씁니다.

사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때때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의 편지 중 일부를 살펴보고, 그가 성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는 때때로 자신이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듣고 순종해야 할 권위 있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다른 책에서 1장, 1-4장을 읽을 때 누가는 자신이 예수의 생애에 관한 전형적인 1세기 전기 외에는 자신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서와 구약의 예언서의 권위를 지닌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자신이 정경 전체를 마무리할 무언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시점에서 구약성서와 나란히 설 신약 정경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책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가 구약의 예언 본문과 구약의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할 무언가를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시점까지 수많은 제안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안을 검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를 읽어서 몇 가지 옵션을 알아보세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두 날짜 중 하나는 Nero의 통치 기간입니다. 공책 맨 뒷장을 펼치면 목록이 보일 것입니다. 공책 맨 뒷장에는 황제 목록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서기 60년대 중반에 통치했던 네로를 찾아본다면 요한계시록이 네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로, 우리가 학기 초에 보았듯이, 네로는 때때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로마가 불탔다고 그들을 비난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박해에 대한 언급이 네로 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과 일치한다고 제안합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서기 60년대 중반으로 날짜를 지정하며 이는 네로 통치 기간 중이나 직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연대를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아마도 1세기 말엽으로 연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트에 있는 황제 목록을 보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1세기 말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초기의 일부 초기 교회 교부들은 요한계시록을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로 연대를 정하거나 첨부하며, 이는 아마도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1세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약성서는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신약성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많은 논쟁을 제시하지 말고 다시 교과서를 읽으십시오. 나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 대략 서기 95-96년,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노트에서 그 중 하나가 언급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인 상징주의일 것입니다. 이 책의 거의 모든 구절은 다소 이상하고 때로는 기괴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이 메뚜기의 환상을 본 장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머리와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그것은 어떤 종류의 비전입니까? 존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용과 뱀으로 가득 찬 책이 있고, 연기와 유황과 불과 유황과 천둥으로 가득 찬 책이 있고, 때로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생물과 페이지를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이상한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요한이 이 상징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왜 그는 상징으로 소통하는가? 그 사람이 뭘 하려는 거지? 두 번째 주요 특징, 그에 관련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구약성경의 사용이다.

이러한 상징의 대부분은 요한이 때때로 자신의 기호를 사용하고 때로는 그의 상징 중 일부에 대해 더 넓은 그리스-로마 세계를 그릴지라도 요한의 상징 중 상당수는 구약성서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 사실상 모든 구절에는 구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비록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코 그것을 인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또는 때로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기록된 다음 그는 구약성경의 내용을 인용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런 것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자는 구약성서, 특히 예언서의 이미지와 언어를 자신의 비전에 엮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요한이 그의 언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요한의 상징과 언어 중 일부의 의미는 요한이 그 상징과 언어를 구한 구약의 배경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왜 기록되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마치 안으로 들어가 손금을 읽거나 타로 카드를 보려고 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구슬의 주된 목적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소 사소한 특징이거나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뭐하고 있었나요? 우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지배와 제국주의 또는 황제 숭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계시록은 로마의 지배와 황제 숭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학기 초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기간 동안 로마는 지배적인 세계 강국이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여 지구의 점점 더 넓은 부분을 먹어치웠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앗시리아, 바빌론과 같은 다른 세계 규칙을 대체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세계 규칙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왔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역으로

퍼졌고, 그 영향력은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로마 통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는 지중해 지역 어디든 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과 로마에 충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번영, 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로마 황제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구세주,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 모든 사람의 위대한 후원자로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리스-로마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때때로 사회 구성원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장려하는 활발한 황제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종종 상업 및 무역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1세기에 당신이 가졌던 직업은 종종 황제 숭배와 황제 숭배 기회, 그리고 황제를 기리는 축제와 축제에 참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숭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제국에 충성을 강요하고, 기회와 기회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말했듯이 아마도 1세기 말 무렵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황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모든 것에 대해 황제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사회에 대한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계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1세기의 일부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동상과 건축물의 형태로 눈에 보이는 표시가 있었고 심지어는 황제에게 빛진 감사의 빛에 대한 비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황제들은 신격화되거나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것이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기할 문제를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까?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치와 황제를 숭배하는 이러한 기회에 저항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무해한 활동으로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특히 그것이 직업을 잃거나 다른

종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불이익이나 박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말은 박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가 주로 1세기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박해가 주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참수를 당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짐승과 로마제국의 손에 의해 고난을 받는지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시가 주로 위안의 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째,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박해는 주로 지역적이고 산발적이었던 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제국 전역의 기독교인 박해와 같은 일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황제의 공식적인 복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를 마을로 파견하고 기독교인을 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박해는 로마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비위를 맞추고 로마의 좋은 입장을 유지하려는 지방 당국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 그들은 로마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 위해 이러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모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에 저항하면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박해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박해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며 주로 지역적이고 산발적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적어도 한 사람,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출신의 안티파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John에게 있어 이것은 확대될 수 있는 갈등의 시작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박해는 주로 산발적이고 지역적이며 공식적으로 승인된 광범위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아시아의 도시들을 볼 때 계시록의 일곱 도시가 위치한 현대의 터키인 소아시아에 가면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으로 돌아가면 그 도시들에 대해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이 언급되는 일곱 도시, 즉 현대 터키, 즉 소아시아, 소아시아 서부의 특정 도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모든 도시는 분명히 로마 제국의 통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로마 통치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도시의 대부분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신전이 적어도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신들과 신들을 기리기 위한 다른 사원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특정 황제에게 바쳐진 사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첫 번째 도시인 에베소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통치했던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숭배하기 위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대부분에는 신과 그리스-로마의 다른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에게도 바쳐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 속한다는 것은 당신이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을 것이며, 당신이 예배와 충성을 바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사건에 충성을 바치거나 심지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로마 이데올로기와 로마 사회와 로마 통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심지어 무역과 상업, 직업까지도 로마 이데올로기와 로마 통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곤경을 안겨주었고, 두 가지 가능한 대응이 있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일반적인 가능성이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된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저항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예배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가 지금 여러분의 순종과 충성과 예배를 요구하고 있거나 적어도 지방 관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귀하의 업무, 가족 전체,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은 저항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가져올 수 있었고 적어도 한 사람, 안티파스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거나, 박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꺼이 로마 이데올로기와 로마 통치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황제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예배할 수 있으며 로마 제국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도 무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갖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타협하는 데 더 안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일곱 통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중 두 교회만이 어떤 형태로든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다섯 가지의 주요 문제는 그들의 참여, 즉 로마 통치와 황제 숭배에 기꺼이 참여하고 로마 제국과 로마 통치에 충성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박해라기보다는 로마 통치와 황제 숭배에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타협과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메인 테마를 분리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히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이 그의 백성이 로마 통치에 저항한다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으로 보는 고통과 박해라는 주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숭배를 받기에 참으로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로마 제국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간이나 인간 기관입니까? 내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자들의 숭배와 충성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 기관이나 단체도 숭배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존은 독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일깨워주는 경종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독점적인 예배와 충성을 타협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이나 인간의 권위나 기관도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와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이나 권위나 기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계시록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거나 폭로하는 것으로 더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한데, 그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20세기나 2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독자들이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제국의 오만함과 허세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기능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한다면 구약성서 조사 과정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종종 해야 할 일은 바빌론이든 인간과 세상 제국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집트나 페르시아. 구약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오만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자처하는 인간 통치자들과 인간 제국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폭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존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전임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이집트 및 기타 고대의 사악하고 사악한 도시와 같은 일부 고대 제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제국이 떠오르고 있으며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하게도 세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든 기독교인을 잡아 부를 얻으려고 하는 피에 굶주린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주로 하는 일은 로마 통치의 가식, 오만, 부유함, 부, 부패한 이데올로기를 폭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하여 로마 통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들은 기꺼이 저항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계시록의 내용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목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 놀라운 제국에 직면한 1세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요한은 이제 그 제국의 참된 본성을 폭로하고, 그 가식과 오만함,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싶어합니다. 사람과 그리스도인. 그것은 하나님이 상징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경건 하지 않으며 요한은 이제 그의 기독교 독자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폭로하고 싶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앞서 말했듯이, 21세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과 밀접한 문학적 비유가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소 유사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비유를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비유가 없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편지를 읽고 쓰고, 여러분 중 일부는 읽고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쓰고, 여러분 중 일부는 시를 쓰지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외에 묵시록을 읽은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묵시록을 쓴 게 언제였나요? 당신은 아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요한계시록을 비교할 수 있는 긴밀한 문학적 비유가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적 장르나 문학적 형식에 적합합니까? 아마도 1세기 독자들에게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문학적 형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눈이 온통 달린 짐승이나 일곱 머리와 일곱 뿔 가진 짐승이나 꼬리가 전갈 같고 머리가 사람 같고 머리는 사람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빨을 가진 이 이상한 환상을 요한이 기록할 때 무엇을 하였는가, 등.? 그게 다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하고 읽기 시작합니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의 문학적 형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말로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목입니다. 요한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 1세기 독자들이 종말에 대한 머리 속에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 그래, 존이 우리에게 종말론을 쓰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것은 우리가 붙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대략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200년까지 존재했던 일련의 기록물, 대략 그 기간, 우리가 종말이라고 분류한 일련의 기록물과 유사합니다.

즉, 종말은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러한 종말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격변적인 종말에 대한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키며, 종말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 일반적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종류의 무기를 통한 대량 살상이 포함된 영화를 연상시킵니다. 영화가 끝날 때 해결되는 전쟁이나 전투를 통한 대량 살상. 그것은 우리가 묵시적인 우주적 규모의 일종의 파괴, 우주적 전쟁이나 갈등, 승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전투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 나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들과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일련의 기록물로 식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묵시록은 기본적으로 독자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실체를 드러내거나 폭로하는 작품이다. 즉, 독자가 자신의 세계를 볼 때 경험적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단순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묵시록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열고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경험적 세계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으며, 그 뒤에는 천국의 세계와 어떤 식으로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결정하는 미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 종말이라는 단어는 베일을 벗기거나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이 하는 일입니다. 종말은 현실을 드러낸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 요한이 말하는 1세기 독자들이 보는 것, 로마제국을 바라볼 때 본 것, 경험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진 것, 그들이 살았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뒤에는 초자연적인 천상 세계와 그들이 현재 세계를 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연극을 보러 가서 자리에 앉아 연극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보는 것은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뿐이라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나와서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고 연설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뿐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연극의 감독이나 매니저, 소품과 의상, 분장 등 연극을 진행시키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커튼 뒤에, 무대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현실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커튼을 올리는 것입니다. 1세기 독자들은 다시 한번 이 경이로운 로마 제국이 영토를 성장시키고 삼키며 1세기에 살고 있는 1세기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만지고 느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하는 일은 역사의 무대로 커튼을 들어올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배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통치 뒤에는 온전한 천상 세계가 있었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지만 1세기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하는 일은 독자들에게 일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첫째, John에게 간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는 처음에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은 역사의 배후에서 하늘 세계, 초월적 현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현재를, 자신의 세계인 소아시아의 1세기 로마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독자들을 위한 이 비전, 이 종말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독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역사의 배후에서 이 천상의 세계,

이 대안의 세계, 미래의 이 천상의 현실을 볼 수 있어 현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소아시아의 1세기 로마 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종말이다. 다시 말하면 공개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의 이면에 있는 장막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있는 현실과 천상세계,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John이 그렇게 하는 방식,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종말의 또 다른 특징은 John이 그래픽 기호를 통해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징은 독자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리에 앉아 이야기 나 산문 문단을 통해 로마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설명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에 굶주리고 머리가 일곱 개 달린 끔찍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전달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나왔습니다.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묵시록으로서의 계시는 단지 지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지성적인 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이 천상 세계에 대한 비전과 그들이 살고 있는 1세기 세계 뒤편과 그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1세기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생생하고 설득력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법일 뿐입니다. 둘째, 계시록도 예언이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주로 미래를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제국과 불경건한 제도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굴복할 경우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일을 합니다. 예언으로서 이것은 주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국민을 향한 격려이자 경고의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책은 세상의 참된 본질을 폭로합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 제도의 파산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백성을 반대하는 어떤 나라나 사람의 가식과 오만함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예언으로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도 편지이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로서 1세기 독자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요한이 의도했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이 마치 바울 서신과 똑같습니다. 바울의 권위로 인해,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쓴 다른 편지들에서, 그 맥락에서 바울 서신의 중요성 때문에 요한이 의도적으로 편지 형식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요한의 책은 1세기의 편지처럼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1장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John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책은 편지처럼 시작하고 편지처럼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미는 요한이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바울이 쓴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제국 통치와 로마 통치의 맥락에서 살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편지로서 바울이 그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이제 요한도 편지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 비전을 받아 기록하고, 1세기에 살고 있는 특정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울 서신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배경,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한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나 문제는 무엇인지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소 지정.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과 로마제국의 상황, 황제 숭배의 문제, 박해의 위협, 로마 통치와의 타협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이 종말과 예언일 뿐만 아니라 편지이기도 하다는 이해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많지만 다섯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당신의 노트에는 4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나는 다섯 번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문학의 종류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배경을 고려할 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시록은 문학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종말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상징적인 언어로 소통합니다. 아마도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자의 경험적 인식 뒤에 숨어 있는 초월적이고 천상의 현실을 묘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초월적인 하늘 현실과 독자의 경험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자신의 1세기 세계나 미래를 문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상징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상징은 무엇을 전달하고 전달합니까?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징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은 그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거나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의 그림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아니면 전갈의 꼬리, 사람의 머리, 사자 같은 이빨 등을 가진 메뚜기의 그림은 무엇을 전달합니까? 그러한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불러일으키나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계시록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요한이 의도하지 않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석은 아마도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의 독자들이 그가 쓴 내용에 완전히 당황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자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세기와 21세기가 지난 지금, 만일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갑자기 우리는 열쇠를 갖게 되거나 요한이 말한 것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집착하는 매우 인기 있는 한 계시록 교사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언어를 반복하는 것은 마치 요한이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로 이동하여 이 모든 사건을 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가서 독자들에게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최소한 완전히 오해되었거나, 더 나쁘게도, 20세기와 21세기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1세기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계시록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로마 통치하에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상황과 위기에 대처할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한이 이해하거나 의도하지 못했고 그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해석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해석은 독자와 저자의 1세기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노트에 c를 적으세요. 나무보다 숲을 놓치지 마세요. 즉, 요한계시록의 주요 메시지와 전반적인 초점, 그리고 환상의 여러 장과 여러 부분을 놓치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과 상징을 알아내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읽고 전체 비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세부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고 모든 세부 사항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데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본연의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로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는 이교 제국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권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해서는 적당한 겸손이 전제 조건입니다. 계시록에는 우리의 계시록 해석에 집착하고 오만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책의 주요 메시지와 주요 초점과 기능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그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통과.

이에 관해서 우리는 상당한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해석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날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모든 세부 사항과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과 씨름하며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하지만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사를 볼 때, 요한계시록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일부 오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에 접근할 때 상당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읽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건이 일어날 때나 일어났을 때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주로 관련된 네 가지 광범위한 접근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단지 문학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술 작품과 그 문학적 기능, 인물의 작동 방식으로 보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성취될지 여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문학으로 읽으면 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었던 투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사건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을 읽는 논평이 있고, 페미니즘적 해석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다른 문제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문제 및 접근 방식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해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나는 네 가지에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주로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책과 그 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는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선, 접근 방식 선택 아래 노트에 메모할 것입니다. 네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계시록에 대한 과거주의적 접근 방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론적 접근은 계시록이 기본적으로 1세기에 모두 성취되었다는 접근이다. 즉,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제국의 1세기 교회들에 대한 주석일 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두세 장인 요한계시록이 미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묘사하는

매우 상징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전주의적 접근 방식은 계시록의 대부분, 사실상 전부 또는 전부가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계시록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단지 1세기 사건에 대한 해설일 뿐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교회의 전체 역사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로,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현재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예언, 혹은 미리 기록된 교회사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역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항상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역사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역사적 접근 방식은 여러 번 수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계시록이 단순히 하나님과 악 사이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시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반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상징은 초월적이다. 그들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단지 일반적이고 이상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그림,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한과 그의 독자들에게 그것은 1세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세기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일반적인 상징, 상징적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그 일이 1세기에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신과 악 사이의 전쟁을 일반적이고 상징적이며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접근 방식은 미래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두... 저는 이것이 획일적이며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순열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주의적 접근 방식에서도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주의적 접근 방식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계시는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계시록의 환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긴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이전주의적 접근 방식은 이미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가 1세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미래주의적 접근 방식은 아니요, 계시는 아직 아닌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일부 미래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일부가 이미 1세기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미래에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주로 미래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이 올바른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글썄요, 아마도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이들 중 두세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이 주로 독자들이 로마 통치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로마 통치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주의적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책에는 주로 1세기를 언급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계시록에는 강력한 미래 요소가 있습니다. 미래를 고려하여 현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자주 당신을 감동시키고 미래의 성취와 미래의 역사 마무리로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도록 현재를 지속적으로 열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현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이 사용한 상징 중 일부가 이미 그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견해에는 확실히 진실이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많은 상징들은 이미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양한 제국, 다양한 인물, 다양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자체로 1세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1세기 로마가 아닌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가 책을 적용할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러한 접근 방식 중 두세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문학 종류와 요한이 쓰고 있는 책의 종류에 대한 가장 정의로운 설명일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문학적 비유를 요한계시록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배경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신약 역사와 문학의 36강의 데이브 매튜슨(Dr. Dave Mathewson) 박사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계시록에 대한 설명입니다.